

전북 근대미술 선구자 권영술 화백 조명

우진문화재단, 3월 31일까지
유작 26점 소장품전 개최

전북 지역 근대 서양화단을 대표하는 1세대 작가 권영술 화백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소장품전이 열린다.

우진문화재단(이사장 김보라)은 2월 20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갤러리에서 권영술 화백의 유작 26점을 공개하는 전시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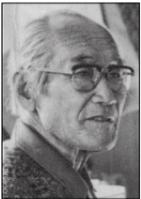
이번 전시는 전북 근대 서양화단 형성과 정신을 재조명하는 기획으로, 지역 미술사의 중요한 축을 이룬 권영술 화백의 예술세계를 집중 소개한다.

우진문화재단은 현재 권 화백의 유작 150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자체 기획전과 전북도립미술관·전주문화재단·완주문화재단 등 대외 전시를 통해 꾸준히 작품을 공개해 왔다.

재단 설립자 김경곤 회장은 전북 서양화단 1세대 작가들의 작품이 흩어지거나 소실되는 상황을 우려해 권영술과 김현철 화백 작품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역 근대미술 유산을 지키는 기업 메세나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김보라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활동한 원로·작고 작가들의 작품이 흩어지지 않도록 모아두는 역할이 필요했다"며 "이번 전시는 전북 근대미술의 출발점과 예술의 순수성을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6년 1월 열린 김현철 화백 소장품전이 가을·겨울의 깊은 정서를 보여줬다면, 이번 권영술 전시는 보다 따뜻하고 생동감 있는



권영술 화백



권영술 화백 작품 '장미'

화면이 특징이다.

두 작가는 서로 다른 미학을 구축했지만, 격동의 시대 속에서도 지역 화단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전북 근대미술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권영술의 화면에는 농촌 풍경과 인물들이 자주 등장한다. 가난하지만 소박했던 시대의 기억을 담아내면서 단순하고 절제된 형태 속에 깊은 공간감을 형성하고,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은 색채로 서정적 미의식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전북 근대 서양화의 출발과 그 정신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3월 31일까지 무료 관람으로 진행된다.

지역 미술사의 뿌리를 확인하고, 소박한 삶의 정서가 담긴 권영술 화백의 작품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술 화백은 전북 완주군 이서 출생으로 서울경고고보 재학 시절 스승 도상봉 화백의 권유로 동경미술학교에 입학해 1943년 졸업했다. 같은 해 동경독립미술협회전에 입선하며 일찍이 재능을 인정받았다.

귀국 후 식민지 문화정책에 회의를 느끼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1945년 군산중학교를 시작으로 1980년 신대인중고까지 36년간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지역 미술 발전에 헌신했다.

1946년 군산 '일지회', 1954년 '신상미술회' 창립에도 참여하며 전북 근대 서양화 도입기의 산파역을 담당했으며, 12회의 개인전을 통해 왕성한 창작 활동을 이어갔다. /이만호 기자

동학농민혁명 역사적 의미 되새긴다

정읍시, 132주년 기념 '고부 봉기 재현행사' 26일 개최

정읍시가 동학농민혁명 132주년을 맞아 오는 26일 이평면과 고부 일원에서 1894년 농민군의 진군과 고부관아 점령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출발점인 정읍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알리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농민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사)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 기념사업회가 주최·주관을 맡고 정읍시가 후원한다. 특히 옛 고부군에 속했던 이평, 고부, 덕천, 영원, 소성, 정우면 지역 주민들과 외부 방문객이 다 함께 참여해 역사적 장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이평면 예동마을에서 출발해 말목장터까지 이어지는 농민군 진군 행렬을 통해 1894년 고부봉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실감 나게 재현한다. 이어 말목장터에 도착한 대열은 격문 낭독을 진행하며 봉기를 향한 굳은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진다.

2부 순서로는 공식 기념식과 함께 동학농민혁명을 서사 형식으로 풀어낸 창극 무대가 열리며, 관람객의 몰입도를 높이는 가상 현실(VR) 점막 공연이 펼쳐져 색다른 감동



을 선사할 예정이다. 마지막 3부에서는 현재 고부초등학교 자리인 옛 고부 관아 점령 과정을 극으로 꾸민 마당극이 열린다. 조병갑의 부정부패와 가혹한 수탈에 맞서 '제폭구민(폭정을 없애고 백성을 구함)'과 '보국안민(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외치며 관아를 장악했던 농민들의 뜨거운 함성을 생생히 그려내며 행사의 대단원을 장식한다.

이학수 시장은 "1894년 1월 10일 전봉준을 중심으로 봉기한 농민들이 고부 관아를 점령한 사건은 동학농민혁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린 중요한 역사적 분기점"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이 동학농민혁명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의미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김태환 기자

'전주, 여행의 기록을 찾습니다'

제15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 3월 3일~5월 29일 개최

전주시가 전주의 옛 모습과 시민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특별한 기록을 찾아 도시의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시는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전주, 여행의 기록을 찾습니다'를 주제로 '제15회 전주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대상은 2000년 이전에 생산된 전주 관련 실물 기록 자료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여행' 부문과 '전주' 부문으로 나뉜다.

먼저 여행 부분의 경우 전주로 떠났던 수취여행과 신희여행, 가족·친구·동료와 함께한 여행 관련 사진을 비롯해, 여행지 기념품(엽서, 배지, 굿즈), 관광 안내서, 교통 티켓(열차, 버스), 여행 일기, 편지 등이 주요 수집 대상이다. 또한 전주 부문은 여행 주제 외에도 전주의 역사와 문화유산,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근현대 사진류와 문서류, 생활박물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면 응모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기록물과 함께 전주시기록관(덕진구 견훤로 264)으로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전자우편(phm0507@korea.kr)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민 기록관(063-281-2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기록물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기증자에게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은누리상품권과 함께 기증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오는 6월 전주시 누리집 게시 및 개별 연락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기증된 기록물은 항온항습과 소방시설 등 보존 설비를 갖춘 전주시민기록관 수장고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전주의 소중한 기록 자산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총 14회의 전주 기록물 수집공모전을 통해 현재까지 총 8700여 점의 민간 기록물을 수집한 바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록조정실장은 "전주는 예로부터 많은 이들이 찾던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만큼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의 책장과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옛 전주의 기록을 모아 전주의 역사를 더욱 풍성하게 채우고자 한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2025년 문화도시 성과평가 '우수'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문화도시 성과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

완주군은 2021년 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5년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과 2022년에는 최우수 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 성과를 이어가게 됐다.

문화도시 성과평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법정 문화도시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체계, 주민 참여 기반, 지속가능성 및 지역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공식 평가 절차다.

완주군은 그간 생활문화 활성화와 마을 단위 문화거점 운영, 주민 주도형 문화사업 등을 통해 문화도시 기반을 다져왔다. 5년간 추진해 온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사업 추진 체계의 안정성, 주민 참여 기반 확대, 지역문화 확산 효과 등 축적된 성과가 이번 평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재)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은 "완주군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5년간 주민과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이었다"며, "3년 연속 우수 성과를 거두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문화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 나선다

부안군은 23일 지역 문화예술 및 공예 분야에서 뛰어난 기량과 활동 경력을 갖춘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부안군 명인·명장 선정계획 공고를 실시했다.

대상은 전문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문화예술인과 공예장인으로 자격은 해당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며 기량이 뛰어난 사람, 관련 단체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주민 등록 주소 또는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부안군에 둔 사람, 부안 문화예술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부안군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로 진행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